

습하야 처신 무디하니 윤부인이 임의 짐작하고 소왈녀 조유신은인지 상시라 몇들이나
 되노 황부인이 머리를 숙이고 답왈로 친이 첩을 사랑하샤 후원의 실패미 짐을 보시고 전
 의 짜먹든 일을 생각하샤 맛춤인 편이 잇슴에 못먹음을 호하샤 미쳐 낙지 아니호는 거슬짜
 보내심이 오다름이 업느이다 연왕이 소왈내비록 정신이 부족하나 지금 본편지는 오히
 러 괴롭하느니 부인의 티고 잇는 지 금스오삭이라 만성이 무심하야 미쳐 물났스나 부
 인의 용피파리하고 몸 팔이다름을 제랑이 어찌 모르느뇨 제랑이 미쳐 답지 못하야 황
 부인이 흘연 버지를 의지하야 혼도하거늘 연왕이 압히나아가 슈티를 글으며 괴석을 숨
 혀보니 의상에 주한이 덤덤하고 후중에 천기심하야 고동하느의 서잇거늘 연왕이 대경
 하야 옥슈를 잡고 정신을 슈습하라하니 황부인이 놀나나러나 음음을 이기지 못하느니
 라 연왕이 문왈 잉티스오삭에 어찌이다 지 견디지 못하느뇨 부인이 침음량구에 무수이
 즈저하다가 티왈 첩이 득죄 신명하야 향일로랑에게 놀낸 후로 흥중에 병이 잇서 미양도
 혈하고 정신이 혼미하와 싱산을 바라지 못하엿더니 다형이 티고 잇스나 전증이 간간 북
 발하야 아싸도 혈하고 신기 불평하니 이는 첩의 조작지 얼이라 어찌하리잇고 연왕이
 경왈그러하면 어찌이싸서 저말슴이 업섯느뇨 황부인 왈 첩의 성 존함도 상공의 관후하
 신은덕이라 하면 목으로 왕스를 데기하야 다시 제붓그림을 돕게하리잇고 연왕이 기용
 하며 황부인의 손을 잡아 왈 호성은 부인을 아나 부인은 호성을 아지 못하도다 호성이 비
 록 불민하나 어찌 부인의 모습을 모르리오 부인이 무단이 즈협지심을 두어 하마터면 호

성으로 그 큰사람이 되게 할 번하엿도다 죽시약을 써도 리하게 하고 일로 붓허 황부인의
 정디를 축연히 녀여 더욱 고호하더라 각설츠시는 추철월의 망이라 연왕이 랑 친척 혼정
 을 맛고 영지 현에와 보니 수키시비호외에 서약을 다리고 황부인이 신기 되곤하야 누엇
 거늘 연왕 왈 금야는 적벽강에 범주하든 밤이라 인신일세의 아름다온 때만 치아니하거
 늘엇지 흥미 업시누엇느뇨 황부인 왈 취몽부인이 진루를 미탈하니 인간가 절이엇지 감
 을 모르느이다 연왕이 웃고 반향을 담쇼하다가 열남현에나르니 윤부인이 랑기시비를
 다리고 월하에 비회하니 정정 혼안식은 월광을 다리고 연연호티도는 흥아를 식고 홀듯
 빙설호 혼조절과 추슈호 혼정신이 일덤전에 업느니라 연왕이 압히나아가 왈 부인이 어
 츠에 흥치 업지아니도다 윤부인이 랑 연쇼왈고 인이 운하되 춘월석이 승어 추월석이 라
 하나 종시 규중녀조의 말슴이라 첩은 보건대 옥우는 무진하고 은하는 경경호티호조까
 묶은 빛이 스헤에 빛최이니 이도 군조의 괴상이오 원결이유시하고 현회무궁하나 모침
 리 묶은 빛을 일치아니하니 이는 군조의 정개라하를며 금야에 덤운이 무흔하고 추련이
 료량호티더 등근박취를 만민이 우려러보니 어찌명월의 득의 할때아니리오 첩이 비록
 소동과의 왕부인 풍치 업스나 오히려 일두쥬잇스나 다만 물외한인이 조덕인 장회민비
 업슬가하느이다 연왕이 대소왈 부인의 말이 록록 호시인운스로 당치 못할지라하를며
 랑성의 심기와 선랑의 풍류와 련랑의 저스를 겸하얏스니 조장량인을 부러울배업는지
 라 두쥬를 잇글고 조운루월석을 구경함이 어더하뇨 부인이 응락하고 수키시비로 일호

주를들니고즈운루로향홀치관풍각에지나다가련량을차즈니중묘당에갓다하거늘
 바로중묘당에니르니당중이적연하고시비고왈아싸련량과즈운루에가시니이다연
 왕이운부인드려왈더의우리를괴이고독락하니우리또흔더의를속이리라하고다시
 중향각에드러가옥떡를차즈니안상에노젓거늘소매에넛코나와부인드려왈우리즈
 운루로가지말고완월당으로가스이다부인왈완월당은인깨갓가오니가기비편홀가
 하느이다연왕왈야심하고강두에인적이업스니무엇이비편홀리오소매를련홀야완
 월당에니르니스면이적료하고십리청강이거울곳거늘연왕이란잔을의지하야슈중
 옥떡을내야일곡을부니강련이료량하고청풍이서리놓는지라츠시란성이철월과망
 을당흠애연왕이오실가하야비반을준비하고량량을청하야금슈정에셔탄금하며명
 월시를외오니야심으로속식이업는지라도허무하야시너를동구에보내여연왕
 오심을담지하더니오래도라오지아니하는지라란성이거문고를밀치고선량드려왈
 상공이풍류에담연치아니심은첩등이아는바라금야월석을허송치아니시리니무슴
 곡절이잇슴이로다선량왈만일심중에걱정이업스신즉필연신상이불평하심이니우
 리가죄음이가할가하느이다련량이머리를숙이고오래싱각하다가왈신상이불평하
 시면첩등에게통하실거시오무슴번외홀이게시면쇼창망우하실지니이째서지아니
 오심은첩등을롱락코저하심인가하느이다연미필에동련에옥덕성이반공중에료량
 하니란성이웃고니러나며왈오왕이셔괴무질병이라련량의말이을도다코치산문에

나와소리나는곳을알고저하더니시비와고왈소비등이동구에반향을기드리다가아
 니오시가부중사지가엽남헌에니르니부인이아니게시고영지헌에가오니황부인씩
 셔신괴불평하샤누오심을보고윤부인가신곳을못자오니상공과완월하라즈운루에
 가셨다하시기로도라오느길에관풍각에드러가더니시비등의말을듯스음애윤부인
 과중묘당에가시더라하거또중묘당에드러가니아싸상공이오샤옥떡을집어가지시
 고어터로가시드라하거여괴오신가하엿더니지금길에셔만히드르니풍편에옥덕
 성이완월당에나니상공과부인이거기게신가하느이다시비서로보며쇼왈내아싸엽
 남헌시비드려무르즉부인파게하에셔들을가르치시며무슴말씀인지오래하시더니
 즈운루로가자하시며일호주를들니시고쇼덕린장회민을츠자가깃다하시니그무슴
 말씀인지하느이다란성이쇼왈천비는두미업는말을어즈러이말라선량왈상공이
 드리실지라우리밤비가스이다란성왈상공이우리를속이시니우리도잠잔슈단을내
 여무미흠을면하고또흔상공의흥치를도으리라소석딩아래일엽쇼선이잇스니손삼
 랑을다리고두어가지풍류와비반을실어완월당으로느려감이도홀가하노라량랑이
 청선하고즉시소석딩에오니슈패고요하고일광이명량흔더일엽선이안두에미엿거
 늘삼랑이비에올나손삼랑으로로를저으라하고란성은옥떡을불고선량은탄금하고
 련량은명월시를노래하며슈류하야완월당으로느려가니츠시연왕이완월당에셔옥
 떡을불더니홀연강상에료료흔소래느거늘옥떡을긋치고윤부인파관잔을의지하야

빌라보니 빅로논 회강하고 슈파는 불홍이라 만련성월이 강상에 조요하고 사샹빅구는
 부분이니라 나 며일 열쇼선이느려오니 슈성옥덕은 금성과 셋겨졌고 일곡로 가는 명월
 시를 화답함애 종류에 빗겨느려오는 지라 연왕이 망연조실하야 이윽히 바라보니 부인
 이쇼왕이논 처석강에 들을잡으라하든 리적선도아니 오적벽강에 벼를 띄우던 소동과
 도아니라 남포선지동희왕을 놀낸이 고무산신네 초양왕을 속임인가하느이다 연왕이
 또흔대쇼하고 시비로비를 부르라하니 삼랑이 웃고 비를져어 강두에 다히매 덩상에 오
 르니 연왕이 쇼왕 금야월식은 홀로 제랑을 위하야 북음이라 내부인과 넘져지 빗을 띄우
 야적막히안졌다니 제랑이 선근이 차즈니 감샤하도 다란성이 뒤왈철등이 평일 상공의
 총의하심을 밋고 금야월식을 띄움애 후사심방하실가기드렸더니 청명호들을 루추호
 사록과 구경코져아니하샤 덩상에 독락하심을 알고 감히 총당치 못하야 강중에 비회하
 며 옥덕이나 듯고 갈가호 열습더니 이 제명하야 불으시니 황공호를이 괴지 못하느이다
 부인이 쇼왕 상공이 만리에 조협지심이 과하샤 제랑의 불속지각이 붓그려 흥치업는사
 름을 다리고 여초량야를 무료이 보낼변하도 다일 재대쇼하고 란성이 시비드려 주중에
 가비반을 가져오라하니 과연 불시지쉬라 들을 향하야 술을 기우리니 과 쥐교착하고 만
 재기 취라 부인이라셔드려 왈내드르니 량랑의 옥덕이 조응물이 잇다하니 선랑의 벽성
 산넛곡요외란성의련화봉은 소리를 잠간 듯고져하노라 량랑이 응명하고 선랑은 란
 간을 의지하야 응물을 본져 알외니 삼삼호바람이 덩상에 나르니 며층층호구름은 강두

采石江 李誦仙 東海王 巫山神女 楚襄王

呂伯恭 張季鷹

에 산란하야 급호물결에 능은 룡이 대강을 뒤집거늘 좌중이 추연송구호지라 란성이 미
 쇼하고 다시 조들을 알외니 기성이 청신한하야 푸른안기 첨아에 들니 고목은 바람이
 사름을 엄습하고 흥안과 빅귀비회편천하며 춤추거늘 량랑이 다시 조응물을 합하야 일
 창일화하니 상성은 묘묘하야 운쇼에 소사나고 하성은 은은하야 산천이 상응하니 화평
 흔재드르면 슈무죽도하고 갠개흔재드르면 천연할루호지라 초시 좌중인이 다 화열안
 락호사름이라 막불칭선하고 즐김을 말지아니하더라 초시 황부인이 산덤이 급하야 시
 비로 연왕씩고하니 연왕이 유부인과 제랑을 다리고 영지현에 나르니 임의 성남호엿더
 라신의 작인을 보니 변화호고 상과 길상호 풍치진짓고 환조데오부귀지상이라 야
 래 폐와 보고 쇼왕쇼의 회길호은 오가의 복력이라 하늘이 주신바니 명을 셔서이라하
 라 연왕이 미쇼하며 황부인을 조롱왈신의 용렬호거동이 더외조를 닮앗스니 타일
 슈분은 조족할가하노라 일재대쇼하더라 차설련지연왕을 보내신 후진왕을 띄우신 주
 자로 취성동쇼식을 무르시며 련련하더니 광음이 홀홀하야 하진추리호애 금풍이니
 러나 고런기 청랑하야 만수선성은 러빅공의 고풍을 스모하고 강동순지는 장계응의 일
 흥을 것잡지 못홀지라 진왕이 일장표를 올려진왕의 인슈를 밧치고 강산에 노라 벼회를
 쇼창하랴하니 엿지호고 하회를 보라

데오십사회

화진이 벼슬을 사양하고 처사를 찾고
창곡이 글을 화답하여 편지 띄드리다

花珍辭職尋處士
昌曲賡詩獻天子

각설진왕이 상표하니 편지 인견하시고 하교왈 모휘죄경에 현미를 멀리 떠나고져 아니
시기장첫경을 권면하여 명대로 모힐가 하였더니 경의 뜻이 또흐니 진왕인슈는
거두려니와 강산에 노라 병회를 쇼창함은 허락지 아니하노니 짐의 후원에 적은 슈석이
있고래익지중에 십주삼산이 있스니 비록 날마다 쇼창코져 하나 어렵지 아니홀지라 엿
지긋하여 멀리 구하리오 진왕이 사왓신이 근봄병이 만스와 미양과 활훈승디 강산을 싱
각하는중연왕은 신의 지고오 취성동즈개봉은 절승훈곳이라 임의 연왕과 상약함이 있
스오니 승시하와 수월말의를 벗어 벗을 심방하고 경개를 구경코져 함이로 소이다던지
흔연쇼왈이 제경의 말을 드름에 짐이 또흐훈금이 울을하야 록슈척산의 유연훈흥치뵈
동하나 롱가봉필이 흥지를경이 허못하야경으로 물외청연을 독락케하니 엿지 절흥치
아니리오 하시고 특별이 왕반간 수월말의를 허하신대 진왕이 삼귀비를 불러왈내 본디
다른 벗이 업고 랑등을 좌우에 둬은 서주풍류와 강산풍월을 동락하야 무료를 면코져 함
이라이 제장첫취성동에 가연왕을 찾고즈개봉에 올라 올회를 풀고올가하노니 연왕은
나의 지과라 정약형대하야 일실지인과 무이하고즈개봉은 유벽훈산중이니 내 장첫사
안의 등산휴기 흠과 미월장의 술처소순함을 의방하야 랑등을 다리고곳치가 고져하노
라 락귀비대희왈첩등이 또흐란성과 슈약이 있스오니 명디로하리이다 진국공취쇼왈

太液池

謝安

米元章

張翥

상공이 풍류지심으로 고인을 찾고져하실진대 맛당히 운치있게 하실지니 장첫엇지 힘
하랴하시니 니잇가진왕왈흥장을 잔술이하야 산간야복으로 삼귀비를 작반하야 바로
취성동으로 갈가하노라 공취쇼왈제명열은 중추가절이라 동근녁이 공중에 오름애 모
다 말하기를스히곳다하야스니 들벗이 일년중에 이 밤에 만을 지라 상공은 엿지 섭리동
강에 일엽션을 멩에하사 일기 옥쇼와수 두류를 씻고 들을 조차 취성동에니르사안하야
주인을 청하야 장건의 범사함을 효축지 아니하시니 니잇가진왕과 삼귀비대희칭찬하고
익일흥장을 준비하야 발흥할시던즈씩하직흔대던지 혼연이 우시며 왈연왕은 경륜
있는재라 시골집에 가필연별반향락이 있슬지니 경은 가보고 일일이 괴역하야 도라오
는날 짐드러 말하야 짐으로와유명산하는 흥치있게하라 진왕이 유유슈명하고삼귀비
와동강상에 일척션을 두고 취성동을 향하야 표연이 가니라 차설연왕이던원에 휴되흔
후미일제랑을 다리고 산슈경개를 차자날을 보내더니 일일은 즈운루에와란성과 랑
을디하야 왈명열은 중추망월하는날이니 당명황이 양래진을 다리고 광한전에올나에
상우의곡을 구경하든 밤이라 내 비록리삼랑의 풍류를 당치못하고 취성동이 광한면에
비기지 못하나 완월당아래 일엽션을 띄여 추강명월을 무료이 보내지 아니라란성이
흔연응락하고 비반을 초와익일랑을드리고 완월당아래니르니 일척쇼선이 임의
강두에 등디하엿더라 등선하야 비를 강중에 띄이고 동중에수십명어 부를 풀어 각각일
척어션을 가져혹그물을 치며혹락시를드리우고성션을잡으라하니 츠시강편이적료

山陰 戴安道 弄玉 王子猷

흔디 일류명일이 두우간에 비회하니 빅로는 회강하고 슈광은 접련이라 홀연일진강풍
이 지나가는 곳에 료료호 소리 멀리 들니 거늘 연왕이 제랑을 보아 왈이 게무슴소리가 노
련량이 귀를 기우려이 옥히듯다가 쇼왈그 소리 십분 료량하야 운쇼에스 못치니 심상호
강상어덕이 아닌가 하노라 셴왕강춘에 밤이 고요하고 추풍이 높흐니 금야월석을 스
랑하노 재엇지 우리 썬이 리오 반드시 강상에 셴유하는 사람이 잇서 임술쥬중의이 귀동
쇼를 희롱함인가 하노라 셴왕이 쇼왈이 지라 초성이 여청산이 아아하고 료쥬양양하니
지괴를스 모함이 오음들이 청신하고 의식담탕하니 범상한자의 부는 배아니라 이엇지
산음설야에 디안도의 집을 차자 가며 료옥의 옥쇼로 셴성을 보함이 아니라 오연왕이 단
왈 초체에 왕즈유의 불속홀풍치업스니 디안도를 뉘차져이 노리를 한가이 화답하리오
가가에 왈

一葉船

十里清江

翠星洞

紫蓋峰

江上

일엽선들을 싣고 십리청강을 흘러니

楊處士

花處士

紫蓋峰

江上

고기잡는 사름들이 양처스 집에 잇거든 화처스오 드라하여라

연왕이로가를 듯고 제랑을 보며 쇼왈이 는 반드시 진왕이 고인을 차즘이로다 하고 홍션
량량으로 옥덕을 불어로를 화답하니 진왕의 총명으로 엇지 석일상림월하에 듯던 소
리를 모르리오 이에 삼귀비를 다리고 셴누에나서며 쇼왈 양형아 황량침상에 취몽을 써
여 강산풍월의 청복을 안향하니 금일즈미 엇더하노 연왕이 쇼왈 화형의 불속함을 내비

록알았스나 금일형식은 살로의 외로다 하고 서로 비를 갖가이다 하고 반김을이 괴지 못
하야 손을 잡고 들을 향하야 셴두에 안즈매 초시삼귀비와 제랑이 또 홀반겨마져미미슈
작이부절하더니 홀연모다 박장대쇼하거늘 량왕이 곡절을 무른대 털귀비와 란성이 상
공의 금야형장을 의심하야 써하되 이는 심상호장부의 설시할배아니라 하기로 첩이 공
주의 지휘하심을 고하오으니 이다 량왕이역시대쇼하더라 인하야 두비를 홀디결션
하야 쥬류에 쓰이고 홍션량량은 옥덕을 불며 귀비는 동쇼로 화답하고 반귀비는 명월
시를 노래하야 슈파를 쓰라상하하며 비반이랑자하고 홍금이 쇠락하니 료량홀덕성은
벽공에스 못쳐가을 소리를 돕고 묘묘홀싱각은 청풍을 멩에하야 우화등션홀뜻이 잇디
라 진왕이 취흥을 써여 서창을 열고 강산풍월을 좌고우면하니 무수홀어춘은 월하에 려
력하고 림강홀딩지는 곳곳이 표묘하야 친구름이 푸른피에 짐기엿고 무른아절앙이 는
푸른봉오리를 들녘스니 북으로즈개봉은 일라 부용이 명러홀고 운을 먹음엇스며 압호
로 취성동은 일쪽 단청을 펼쳐 동던복디를 일췌거늘 진왕이 연왕을 보며 단왈 양형이 출
장입상하야 공명훈업이던하에 배남은 지혹을 인연함이라 내비 록비라지 못하니 이
혼명구승디를 엿어 산수지락과던원지미로 물외청복을 누림은 인력으로 못홀바라 반
드시하늘이 주심이니 화진이 엿지 홀션한식이 업스리오 하며 인하야 성지를 전하야
왈 황상이 양형의 경륜지국을 칭찬하야 반드시 별반형락이잇스리라 하거니과 연복
게보심이로다 언미필에 홀연두어 사름이 강두에너르러 급히 비를 부르거늘 연왕이가

등을 명하야 일척어 선을 저어 곡절을 무른대이에 황성익례라 황명을 밧조와 수 두법주
와어 찰을 밧들어 연왕씨 전하 고진국공취또 혼주찬을 보내여 진왕씨 드림에 연왕이 부
향스니 고어 찰을 떠혀보니 보옥이 휘황하야 일수 절귀를 천필로 쓰셔 시니 그시에 왕

十里桐江兩葉船 십리동강 두조각비에

風流蕭灑玉京仙 풍류쇼쇄하야 옥경의 신선이로다

瓊樓玉宇今宵月 구슬누와 옥집오날밤달에

偷念寒多兜率天 훗찬것이 만흔 두솔련을 생각홀쇼나

연왕이 쌍수로 밧조와 저삼너으며련은 을감겨하야 량향루쉬귀밧듯거늘익례이에
마뒤병에 법주를 밧들어 드리며 성지를 다시 전하야 왕경등이지고 상봉하야 량쇼명월
을티하니 능히 짐을 생각홀쇼나 수비주로 흥치를 돕노니 들아래 혼잔을 부향하야 능히
들어 고인을 권하라 하사디이다량왕이다시 저비하고 감취송형하며 부향첨망하고 읍
읍초창하며 량구무어하더라진왕이 법주를 다리며 왕이 술은 성주의 주신바라우리비
록취하얏스나스양치못하리로다 하고 각각 수비를 마신후다시 공주의 보낸 주효를가
저연왕을 권하며 쇼왕화진이 비록소조첨의 풍류를 당치못하나 공주의 현숙함이 왕부
인의 소치를 양두치아 날지라 양형은 엇지 주중에 금촌술을 앗겨 불시지슈를조량치아
니하느뇨연왕이 웃고 비반을 저촉하니아이오일기청의 쇼선을 저어 선두에다히고 십
여명시비비반을 차례로 드릴시 열남현영지현시비는 윤황량부인의 음식을 드리고조

은루중묘당과 관풍각시비는란성선숙인련숙인의 음식을 드려오쳐음식을 밧아 주중
에그득하니 무비진슈성찬이라진왕이삼귀비를보며쇼왕내아싸공주의수두주를포
장하엿더니이제봄애닐은바바다구경혼자에게물되기어렵도다털귀비쇼왕첩등도
량부인제량의보낸음식을저제보고다시별양풍미를겸호가하느이다량왕이듯고몸
을니러제량의주중을비라봄애음식이약류혼중일엽쇼선에륙칠기시비밥을지으며
싱션을회쳐덤덤청연은강풍에느부치고은린옥척은월하에령동하야진짓강호물석
이오탈속흔노름이라량왕이미쇼왕찬왕제량이이긋치독락하나금야지유는제량의
노름이라하더라야심후모다술이반취흠애란성이도화량협에주흔니몽롱하고팔조
춘산에풍정이발월하야삼귀비를보며쇼왕우리풍류장에노든사람이라금야월석을
엇지쇼도히보내리오각각일곡노래를지어올적흔흥금을풀미엇다하노반곡량비또
흔취흥을써여제성칭찬하니란성이다시웃고왕슈연이나량왕이지척에게신주주중
의이목이슈습하나우리맛당히비를풀어종류에써이고미음되로놀니라하고다만손
야차로로를저으라하야비를강중에써이고란성이주령을내어왕만일쳐셔에가곡을
일우지못하자는십비대벽으로별하리라털귀비왕량등은풍류로성장하야 입을열
매금슈문장과오음륙들이슈고롭지아나나첩호흔자는농가에자라다만밥먹고잠잘
즐만아니장춧엇지하리오란성이쇼왕이좌석은공조왕손의풍류연석이아니라나물
키는노래와고기잡는곡요로석상의우음을도음이더욱묘홀지니만일이를스양홀진

대조운루중의 두어 섬술이 바다 못하니 귀비의 취도음을 도라보지 아니라 하고서로
 가가대쇼하더라 초시량왕이 제량의 괴식을 알고 진왕이 쇼왕제량이 무단이 비를 움겨
 범피종류하니 이는 반드시 별반독락함이 잇스리로다 우리 맛당히 만히 구경하리
 라하고 일엽쇼선에 올라 만히 제량선두에 다하고 봄에 제량이 선창을 닦치고서로 랑
 랑이 우으며 슈작하더니 랑성이 주호를 치며 일곡가스를 지어 놓히 노래하니 기에 왈
 江天寂寥南鳥鵲月光
 강천이 적료 혼디 남으로 가는데 오작아 월광을 놀네 나 옥쇼성을 드렸나 중츄가
 節無窮無盡才子英雄
 절은 무궁무진오 건마는 지조영웅을 차질 곳 전혀업다 동조야 군산의 천일취의 었다
 一葉船洞庭湖
 하니 일엽선설니 저어 동정호로 가자 세라

초시 랑성이 취흥을 띄여 가 후를 흐뭇 굴림애 몸은 곡되 강개 처 절하야 일좌를 경동하는
 지라 반귀비 그 뜻을 니어가 왈

紫陌紅塵

支離

清歌妙舞姑蘇臺上春草綠

鷓鴣

兒孩瓶中

江天

一葉船

月宮姮娥

히야 병중의 늙은 술보아라 강련에 들넘어 갈가호노라

란성이 청찬왕귀비의 노래 번화담랑호중가곡이 청신하니 풍류슈단이 금일씨지잇도
 다 선속인이 또 일곡을 불너 왈

碧城山

紫蓋峰

金剛水

一葉船

月宮姮娥

벽성산는 구름개봉비가 되야

金剛水

슈흐른 물에 일엽선씨여 늦코 월궁호아 벗을

삼아 청풍에 반취하니 아마도 인간자청복은 나 혼자 누린가호노라

선속인의 노래 응용한 아하야 알연호곡되 강련에 료량하니 일좌차란하고 반곽량귀비
 속인의 손을 잡고 탄왕랑지 일즉청루에 독보음을 드렸더니 이제 봄에 전제인물이 아니
 로다 하더라 곽귀비 또 일곡을 화답왈

一陣風

十里清江

江山佳麗

風景

玉京

일진풍 돛을 달고 심리청강느려오니 강산도 가려하고 풍경도 그지업다

傳

人間雙星飛瓊綠華豈蘭香

벗님씨 전하야라 인간의 쌍성비경록화두란향다 모혔다 하야라

곽귀비 노래를 못침애 델귀비련속인을 보아 왈 일창일화는 셋셋호일이 라속인은 주인
 이니 디긋지도에 비록 년치적이나 문져 일곡을 불으라련속인이 스양치아니하고 아연
 이 일곡을 불으니 기에 왈

江水

明月燭

十里明沙筍

不醉無歸

青山

가슈로 술을 빚고 명월로 촉을 삼아 심리명사산을 늦코 불취무귀하스이다 청산아 지
 는 들 멈추어라 늙은 술두고 벗님 갈가호노라

반곽량귀비 격절청찬왕련속인은 풍류가곡에 유의함이 업슬지라 이제이 못치아름다
 오니 이는런저로 다하더라 델귀비 니어 불너 왈

伯牙琴

綠水青山

明月

清風

人間塵累

빅아 금넙히끼고 록슈청산차자가서 명월로 벗을 삼고 청풍에 놓히누어 인간진루를

니즘이니 깨워신고내역시 방탕호조최로 경개싸라예왔노라

란성이 옥슈를 들어 주호를 치며 척척청찬왕귀비의 일곡청가는 죽히고인의 죽지스에
 오를지라 엇지심상호청루가곡으로 당호배리오연미필에 손야 채쇼왕로신은 강남어

위라일곡로가를비홍이있더니제위랑즈의우으심을도으리이다호고비전을치며노
래하야왈

비져어라비져어라로화노라^{江天}가고강련에들듯는다^{銀鱗玉尺}은린옥척^{杏花村}췌여들고^{香花村}히회춘차

자가자비져어라무릉도원어뒤^{武陵桃源}메노부춘산이여기로다^{富春山}영천슈^{穎川水}물은소먹이논
더사름아^{堯舜}요순이^{在上}지상하니네절기즈랑말아비져어라비져어라^{綠蒲溪邊}룩포계변에^{浣紗}완시하

는더미인아시절이^{美人時節}분분^{紛紛}하니네^{越王臺}얼골곰다말쇼월왕^{越王臺}뒤^{越王臺}놓은^{越王臺}곳에스^{越王臺}슴이노^{越王臺}단말가^{越王臺}비

져어라비져어라^{銀河水}은하슈^{銀河水}느린^{金剛水}물이^{金剛水}금강슈^{金剛水}되^{金剛水}단말가^{紫蓋峰上}즈개^{紫蓋峰上}봉상^{紫蓋峰上}봉에^{紫蓋峰上}신선^{紫蓋峰上}이^{紫蓋峰上}는^{紫蓋峰上}렸^{紫蓋峰上}세

라^{才子佳人}리다^{才子佳人}여라^{才子佳人}비다^{才子佳人}여라^{才子佳人}취성^{才子佳人}동으로^{才子佳人}비다^{才子佳人}여라^{才子佳人}련^{才子佳人}하^{才子佳人}강^{才子佳人}산^{才子佳人}편^{才子佳人}답^{才子佳人}하니^{才子佳人}취성^{才子佳人}동이^{才子佳人}데^{才子佳人}일이^{才子佳人}오

직^{才子佳人}즈가^{才子佳人}인^{才子佳人}다^{才子佳人}보^{才子佳人}아^{才子佳人}도^{才子佳人}이^{才子佳人}자^{才子佳人}리^{才子佳人}웃^{才子佳人}듬^{才子佳人}이^{才子佳人}라^{才子佳人}부^{才子佳人}용^{才子佳人}검^{才子佳人}놈^{才子佳人}히^{才子佳人}결^{才子佳人}고^{才子佳人}우^{才子佳人}주^{才子佳人}를^{才子佳人}브^{才子佳人}라^{才子佳人}보^{才子佳人}니^{才子佳人}아^{才子佳人}마^{才子佳人}도^{才子佳人}녀^{才子佳人}중

호^{豪傑}길은^{豪傑}하^{豪傑}나^{豪傑}췌^{豪傑}인^{豪傑}가^{豪傑}하^{豪傑}노^{豪傑}라

손야^{烟月}채가^{烟月}필에^{烟月}가^{烟月}대^{烟月}쇼^{烟月}하^{烟月}니^{烟月}모^{烟月}다^{烟月}그^{烟月}괘^{烟月}함^{烟月}을^{烟月}칭^{烟月}찬^{烟月}애^{烟月}량^{烟月}왕^{烟月}이^{烟月}또^{烟月}흔^{烟月}취^{烟月}흥^{烟月}이^{烟月}도^{烟月}도^{烟月}하^{烟月}야^{烟月}다

시^{烟月}비를^{烟月}련^{烟月}하^{烟月}야^{烟月}중^{烟月}류^{烟月}에^{烟月}씨^{烟月}이^{烟月}고^{烟月}놈^{烟月}은^{烟月}술^{烟月}과^{烟月}놈^{烟月}은^{烟月}들^{烟月}을^{烟月}가^{烟月}져^{烟月}딜^{烟月}탕^{烟月}오^{烟月}유^{烟月}하^{烟月}다가^{烟月}선^{烟月}유^{烟月}를^{烟月}파^{烟月}하^{烟月}고

완^{烟月}월^{烟月}딩^{烟月}에^{烟月}니^{烟月}르^{烟月}니^{烟月}황^{烟月}성^{烟月}익^{烟月}레^{烟月}일^{烟月}석^{烟月}을^{烟月}씨^{烟月}여^{烟月}도^{烟月}라^{烟月}감^{烟月}을^{烟月}고^{烟月}하^{烟月}니^{烟月}연^{烟月}왕^{烟月}이^{烟月}당^{烟月}상^{烟月}에^{烟月}촉^{烟月}을^{烟月}북^{烟月}히^{烟月}고^{烟月}일

폭^{烟月}치^{烟月}전^{烟月}을^{烟月}밭^{烟月}들^{烟月}어^{烟月}일^{烟月}슈^{烟月}시^{烟月}를^{烟月}쓰^{烟月}니^{烟月}기^{烟月}시^{烟月}에^{烟月}왈

烟月江湖放一船 연과들강호에호비를노흐니

夢魂猶逐舊班仙 寤惚이오허려넛신선의반렬을조찾도다

恩杯奉祝南山壽 은혜잔으로밭들어남산슈를비노니

雲漢瓊吟下九天 운한에구슬소리구련에늘이도다

연왕이공경셔필에진왕이또흔일슈시를지어익레를보낼셔연왕이북향스비하고말

숨을북쳐양달왈신이불충하와련페를하직흔지임의환절흔지라의외보무통장이몽

필에빛나고금장옥익이은턱을무릅셔그도보홀바를알지못하오니황무흔글귀로성

은을화답홀은감히조림하심을비람이아니라신의구구우충을기록홀이로소이다익

레즉사랑왕씨하직하고황성으로도라가니라삼귀비는량랑으로긋치가고진왕은연

왕과는후딩으로오니명일다시엇지논고하회를보라

데오십오회

취성동에진왕이별원에놀고 聚星洞秦王遊別院

즈개봉에홍랑이신선을짓다 紫蓋峰紅娘做神仙

각설연왕이진왕과긋차동중별원을츠레로구경홀셔만히제랑과약속흔후진왕을
디하야쇼왈내삼쳐별원이잇서삼첩을두엇스되데턱원림을다각각제췌기로비치하
야그취홀이다르니형이능히집을보고주인을점철쇼나진왕이흔연응락하거늘연왕
이짐짓진왕을인도하야몬져중묘당에니르니산경이유슈하야췌췌이길을일헛스며

水鏡村 五老峰 白鶴觀

괴석괴암이 좌우에 층층하니 진짓동던 별게오 절속흔곳이라 산문에너름에 적적흔죽
 비에 빙운이 어리엿고령령흔탄금성이은은이들니 거늘진왕이 발을 멈추고 왈 화진이
 양형의 소이둔곳을 구경코져 왔더니 길을 그릇들미로다 이곳이 만일 슈경촌이 아닌즉
 반드시오로 봉하 박학관이로다 진념이 돈연이 살아지니 엿지 풍류가 희의 쳐할배리오
 연왕이 웃고 못치당에오르니 슈회반기하고 인적이 적연흔티 양기시비 향로의 불을 불
 어차를 다리거늘진왕이 미쇼왈 슈인은 어디가뇨시비 왈 후원별당에가시니이다량왕
 이흠씩별당에니르니 삼랑과삼귀비다모헛더라분벽사창에단서일권을안두에퍼놓
 코선속인은반괘량귀비와단서들의론하며홍랑성은덜귀비와거문고를두다가모다
 니러맛거늘량왕이덩좌후초들니봄에향도에청연이살아지고상두에년진이청정
 혼중일쌍박학이게하에비회하니묘연이도관선당에입도홀의식있다라아이오차를
 드리며산효야치와일호주를나와담박훈풍미와쇼쇄훈음식이고량의저즌장위를죽
 히세우칠니라연왕이미미쇼왈금일화형의조감을볼지니이집슈인이누구라하뇨
 진왕이삼랑을재로이숙시하며침음쇼왈이논이에옥경청도의인간진루를버셔난곳
 이라반드시선분잇는재쳐홀지니창졸산점치지못홀지라맛당히삼쳐별원을다보고
 관단하리라연왕이미쇼하고다시즈운루를차갈석삼귀비삼랑이또흔뒤에쓰르니
 라동구에너르러진왕이좌우를고면하며미미히웃거늘연왕이곡절을무른대진왕이
 쇼왈내이곳에너르러는슈인을입의철분점득함이잇노라연왕왈누구이뇨진왕이부

답왈십분무의흔후말하리라하고바로즈운루에올나경개를즈세들너보고칭찬하며
 중향루영풍각과박옥루를츠레로본후금슈당에안저탄왈내너모일즉왔도다이곳이
 구월경개정히아름다오리로다하더니홀연란두에수층가즈를정치하게꿈이고가즈
 우에일쌍호응이깃을다듬아들을흔정신이운쇼에소슬듯하거늘진왕이이윽히보고
 무릅을치며쇼왈내이제즈운루슈인을알았도다금풍이소슬하고옥위징영홀티일쌍
 호응이벽공에높히소사썩른눈이박리견추호하며돌연흔괴세청운을박차고란봉을
 하사하야인간박묘의구구록록함을우를지니엿지란성후홍흔달의평성홍금이아니
 리오네적의기상인은준마를스랑하고왕희지논게우를도화하니죽히그괴상을싱각
 홀지라만일란성이아닌즉추풍호응을이곳치스랑홀재업슬거시오화진이아닌즉란
 성의의상을이곳치알재적을가하노라량왕이서로대쇼하고슈인을부름에란성이나
 아가일변비반을드리며진왕씩고왈첩의집즈운루월식이십분아름다와완월당에비
 혼죽별반운치잇스오니상공은금야쇼창쇼셔진왕이쇼왈내비록불속지킴으로즈
 청치못하니이곳경개를티흠애담연이도라갈무음이업더니슈인이입의괴의괴석을
 알고이곳치신근이청하니엇지스양홀리잇스리오연왕왈입의그러홀진대관풍각을
 마져보고오리라하고란성은즈운루에머머러두고량랑과삼귀비를다리고진왕을인
 도하야관풍각에너르니들에그득흔박곡이누른구름못치풍등하고베짜고방아씻는
 소리쳐쳐에랑자하거늘진왕이흔연쇼왈양형의향거지락이진실로여괴잇도다식문

에들미두마리삼살개는손을보고내다르며올타리의들의소리져녀을보하더라당상
 에초석을살고죽창을의지하야죽익이분좌후연왕이진왕을보며쇼왕화형이금일
 년가의손이되야엇지주인을찾지아니하노뇨진왕이침음량구에멀니드름애제랑의
 우음소리나거늘그곳을무른대연왕이쇼왕가후에수간별당이잇는가하노라진왕이
 연왕의손을잡고왈내조감이불명하야관공각주인을종시히득지못하더니반드시십
 분정신이별당에잇도다하노고거름을훑혀후당을도라잠실을구경하노원중별당에니
 르러침문을열매슈호문창에보장을느리오고벽옥상상에제랑이희좌하야담쇼슈작
 이설치지아니하거늘진왕이바야흐로대쇼왕금일화진이니모무레하야축용공주의
 궁중에드러와도다이엇지홍도왕의부마도위침실이아니리오호내제랑과연왕이일
 시대쇼하노진왕이다시연왕을보며왈양형이임의벼슬을브리고부귀를하지하노고의
 골로도라오니그본의를말할진대불과복과지성함을두려워함이라만일관공각의검
 소함과중묘당의담박함이업던들엇지명존실무한식이업스리오홍란성은초군절
 류호인물이오하늘이내신사름이라비록평성을부귀하나과복함이업스려니와선련
 량량은부귀문중의왕후쇼실이되야심지지욕과이목지락을구하야못할배업거늘이
 제도관의적막흔운치와촌가의용용흔즈미를분취이곳치별반비치함이잇스니엇지
 다만양형의풍류형락을도를썩이리오장차후복이무궁하리로다슈연이나내전일진
 남성에서런표기를쳐음봄애미첩지간에지성이렁렁하야속담소위오미구존호사름

이라엇지한갓향원지락을붓칠새름이리오반드시이별당이잇슴을내보지아니하야
 짐작하얏노라하더라진왕이인하야삼귀비를도라보며문왕랑등이삼랑의별원을보
 앓스니어느곳이묘음에도러노각각소견늘말하라삼귀비일시되왈춘란추국이무비
 아름다오니처음중묘당을봄애진념이살아지고물욕이청정하야유연이입도홀묘음
 이잇더니즈운루에오름애홍금이패활하노고의석변화하야풍류호방호성각이밍동하
 고이제관공각에니름애용용호성애와즈미로은거동이또호인간지락을써드를지라
 첩등이그우렬을딩치못하야이다양왕이대쇼하며그말이결당타하더라연왕이웃고
 련숙인을보아왈산중에신근이차자오신손님을엇지그져보내리오화쳐스는가부의
 고인이라농가음식으로릭반총당을혐의치말고석반을준비하라진왕이흔연쇼왕화
 진이실로연왕을차즈미아니라취성동양쳐스를보라와더니종시부귀과상이잇서자
 못홍금이청쾌치못하더니금일맛당히비를니먹을가하노라련숙인이삼귀비드러문
 왈상공이무엇을즐기시뇨노귀비왈식전방장의팔진미를노와도하저하심이적으
 니별로즐기심을보지못하엿노라련숙인이웃고의상을놓히고친이슈하에느려가솟
 을써스며함담을맛보아원중에아욱을색고을밋히박을싸호라하일과반은립립히향
 괴롭고강동의청순치는낫나히벽옥이라련숙인이이에옥슈로반을빳들어취미를숙
 이고거안제미하야몬져연왕씩드림애일키시비또진왕씩드리니진왕이흔연이져를
 들어일변먹으며삼귀비를보아왈내궁중에잇슬제종일소식이일승에불과하더니금

일그릇이 뷔엿스나 오허려비부르치아니하다하더라 임의 일모흔지라 추각이 식문에
 나니 동령의 도든들이 나무그림즈를 음겨 길이 희미하더라 홀연 량기청의 사롱에 불을
 혀들고 마조오니 이논란성의 보낸바라 길은 인도하야 다사즈운루에 니르니 란성이 임
 의 연석에 기다리더라 루상을 우러러보니 표묘흔첨아닷마다 구슬등을 별치칠엇고
 십이란잔에 슈정발을 면면히 드리웁스니 광치령룡고셔기 휘황하야 동명흔빛은 안
 목이 부식고셔늘흔기운은 흥금에스 못처의 연이 일죄 광한 면을 비라 봄다더라 루상에
 오름에 십여 잔 루중에 룡슈빙문덤을 포진하 고동서로 빅옥교의에 흥구유를 쌀앗스며
 슈정반유리종을 처처에 노앗스니 동명형철흔기운이 월광을 도아 일덤진애지괴업더
 라 아이오십여 명가기 담자운환으로 빅릉보말에 비취라 군을 쉼쳐명월패를 울니며 후
 풍류들 안고 혹소매를 던지며 쌍쌍이나 울시일시에 예상곡을 알외고 우의 무를 춤추니
 청아흔곡도 논구쇼에 나타나고 전전흔무슈는 월하에 표요하야 삼삼흔기운과 정정흔
 바람이 좌상에 너러나니 량왕이 망연에 보고도로 허치운빛이 잇거늘 흥탕이 미쇼하며
 시비드러 일쌍호빅구를 가져오라하야 량왕씩닐으심을 청하 고 박산로에 기린탄을 뵈
 여술을 데히며 풍류를 못친후비반을 나을시진왕이 연왕을 향하야 탄왈우리 비록우의
 무를 루초보앗스나 엇지 금야 광한궁의 월궁선악을 목도 할줄아랏스리 오화진으로 십
 년 흥진의 취몽을 서쳐지금 오허려진청골링하도 다털귀비쇼왈첨은 범골이라 만일던
 상선경이 이긋치청량홀진디 침고답답하야 월궁흥아 됴을 불원일가하느이다 란성이

웃고 좌우를 명하야 빅여기 흥로에 불을 휘우고 고기를 지지며 술을 권하야 왈아싸는련
 상노름이 오지금은 인간연석이니 귀비는 비주로어 한하라 주육이 립리하야 일채미취
 하야 한기물너가고 화괴만 좌하야 춘풍이 호탕흔흥치를 돕는지라 량왕이 일시에 호빅
 구를 버스며 옥면취흔이 만화방창하 고 삼귀비부용량협에 춘광이 무르녹아 우음을 씨
 여후비파를 안으며 거문고를 다리혀 방중악을 알외더니 아이오야 심흥에 파연하 고 연
 왕이 제랑을 불너 왈 내이곳에 온후즈개봉을 구경치 못하얏더니 이제진왕과 삼귀비나
 의 줄흔흥치를 고동하니 명일즈개봉노름을 츠리라 제랑이 유유하도라와 란성이 삼귀
 비와 선련량랑을 뒤하야 월명일노름에 필연첨등드려다치감을 명하실지라 제랑은 엇
 지각각 경륜을 내어쓰라가는붓그림이 업게아니하느뇨 털귀비쇼왈첨이또흔이를싱
 각하나 방략이 업더니 란성은 경륜을 설시하라 우리 맛당히 우익이 되리라 란성이 미쇼
 하며 제랑의 귀에다치고 만히말하 고서로 박장대쇼하더라 익일연왕이 진왕과즈개
 봉구경감을 량천씩고흔후형장을 준비할셔괴귀비진왕씩고왈금일노름에 패흥됨이
 적지아니 할가하느이다 량왕이 곡절을 무른대괴귀비왈홍란성선숙인반귀비삼인이
 련일야연에 추상하야 종야대흥하 고 일분경황이 업서하니 되시고 가지못할가하느이다
 다 연왕이란성과 선숙인을 불너 무른대 란성왈첨은 뜻스오니즈개봉은 인간선경이라
 적용안괴쌍성비경의 오유하느곳이니 조물이 첩의선분업슴을 식고하야 뒤에쓰르지
 못할가하느이다 털귀비왈란성이아니 잔죽첩도아니가라하느이다 괴귀비왈이느강

박홀배아니라유산지형이등고섭협야비록무병호재라도너즈약질이신괴되곤호
 려든농물며신상이불평함이리오란성이쇼왕선랑이비록공치적으나산슈공월에염
 피홀재아나니이제만일강임야조차잔죽도로허무료흔근심을더하야흥치업슬지
 니련술인파랑귀비죽히랑위상공의쇼흥을돕스올지라첩과반귀비선숙인은부중에
 잇서벼을도섭고저하느이다량왕이홀일업서십분초창무료하야다만련숙인파렬과
 량귀비를다리고형홀시치시는팔월중술이라절제일너금공이쇼슬하고상퇴괴강하
 야두어떨기산국은향양하야몬져귀고왕왕이단풍은누른빛을씩였스니산건야복으
 로압서니는량왕이오당건록포로뒤선자는량귀비련랑이라각각일필청려를두고오
 륫기가동이슬과거문고를가지고쓰르니도쳐보는재비록량왕임을모르나일형의옥
 모풍처아름다움을슈상이보더라치홍란성선숙인반귀비등이량왕의흥치를돕고
 저하야별반형구를장속홀시홍란성은성관하의로슈중에파리체를들고선숙인반귀
 비는선관도복으로빅우선을들었스니의연이일반선관의모양이라다만수기선동이
 업서정히근심하더니홀연좌위보하되수승치괴동구로드러온다하거늘모다봄애별
 인이아니라이에청옥량랑과량기공인이라청옥이란성의압히나아와왕첩등이랑즈
 를뵈오려오다가량공인을맛나니또흔삼귀비씩뵈오라는걸이라긋작반하야오
 니이다란성이반겨량랑과량공인의손을잡고쇼왕하늘이선동선녀를보내샤우리상
 공의노름을도으시도다하고인하야장차여쳐여추흥을말하야왕량위상공이입의발

형하야계시니우리지완치못하리라하고청옥량랑은청의를입히고호로병을채와동
 즈모양을장속하니진실로랑기절묘흔선동이랑너이인은혹도의를넉히고성황동
 쇼를볼며혹흥포를넉히고록미션을가져모다장속을못친후서로보고대쇼하고란성
 이다시수기차환을번복하야다리고즈키봉을향하야갈시반귀비를보아왕우리리
 압서갈지니창두중즈개봉첩경아는자로길을인도하게하고동구서지각각교즈를드
 고가스이다모다가타하고형장을지축하야갈시대로잔죽오륙십리오첩경으로잔
 죽불과이십리러라제랑이망망이즈개봉동구에니르러교즈를돌너보내고각각청려
 를드고랑랑이우으며산중으로드러가니엇지흔고하회를보라

데오십륙회

五仙菴諸郎弄仙跡

紫蓋峯兩王觀日出

오선암에제랑이신선의자취를희롱하고
 즈개봉에량왕이일출흥을보다

각설즈개봉은즈고로려산과병칭하느명산이라주회이빅여리오멀니브라봄애심히
 놓지아나하나올나본죽중원일국을굽어보는곳이라산중에삼십여처도관고찰이잇
 고슈석과경개절승하야츄츄로유산하느재락역하느바회마다일흥을샤여빈곳이업
 더라치량왕이제랑과라귀를모라서서이산천풍경을습히며혹선혹후하야즈개봉
 동편에다다르니임의석양이저산하고산길이희미하더라홀연수플스이로일기로승

이나와합장레필에연왕왕우리는유산하는사름이라금야산문에일숙지연을밧고져
 향노니뜻에엇다향노로승이합장티왕빈도의암저비록루추향나일간직실이오히려
 정쇄향오니수여가쇼셔연왕이치샤향고일행을암중에안돈향고져녀저를파흐후로
 승드려문왕여기셔취성동이뻗리며이산상봉에올나가기얼마나되는노로승왕취성
 동은이십리오상봉은비록리수를료량치못향나스십리라향는이다연왕이진왕을보
 며늘나왕우리종알행향야이십리를오단말가로승왕상공의행추는반드시대도로오
 시도소이다대로는륙십리오소로는이십리니이산이본대길이만하여러갈내로갈년
 고로대로로온즉쇼승의암저즈개봉초입이오쇼로로온즉옥류봉이즈개봉초입이되
 나이다련숙인이문왕유산직이얼마나되더노답왕아즉단풍이란만치아닌고로희쇼
 향더이다털귀뵈우문왕대스의년과놈흐니응당고스를알지라이산일흥을엇지향야
 즈개봉이라향노로승왕빈도는본디광산중이라이곳스적을즈세모르오나류전향는
 말이이산상봉에넛적에선선이느러즈개운번이빅일에비회향고이향선악이풍편에
 들닌고로인향야즈개봉이라향고봉두에이향암이라향는암저잇는이다귀비쇼왕
 네에잇든선선이지금업스리오우리가길에선선을맛날가향노라련숙인이쇼왕전설
 이무비랑설이라제잔에엇지선선이느리리오량왕이미쇼향더라익일에로승을작별
 향고수리를행향야향곳에느리니복은사내돌우에흐르고락락장송이좌우에버렸는
 디창연흔석벽이동문을일위벽상에붉은글자로옥류동련이라샅엇더라량왕이흔연

匡山

異香菴

玉流洞天

하마향야왕이곳경개괴이향나수여가리라향고물을림향야석상에덩좌향고가동으
 로락업을쓰러차를다리라향더니귀비옥슈들여석벽을르쳐련숙인과털귀비
 를보아왕쳐쳐에데명이오름름이글귀로다지즈가인의허다성명을이로괴역지못향
 러니와그중반드시기이흔글귀만홀지니우리가보리라향고삼인이서로손을잡고석
 벽아래니르러후랑음향며후평론향고랑랑이우으며짓거리거늘량왕이또흔몸을나
 러제랑의억기를잡고벽상을우러러보매그중일수시잇서필적이새로쓴듯향거늘모
 다즈세보니그시에왕

驟鸞駕鶴一千年 란새를르고학을멍에흐지일천년에

偶過玉流小洞天 또옥류쇼동련을지내도다

玉笛三聲人不見 옥덕세소리에사름은보지못향는디

靈風吹破滿空烟 신령흔바람이불어공중에그득흔연기를쳐치도다

량왕이이옥히보고진왕이지삼을취왕이느심상흔유산직의글이아니라돈연이연화
 지괴업도다털귀비쇼왕로승의말이산중에선선이왕리향다향더니엇지리적선려동
 빈의무리의쓰고잔배아나리오련숙인이링쇼왕명산슈석에오유방랑흔자최선선구
 과를모습향야보는자를괴롱흠이니엇지선선이잇스리오향거늘양왕이미쇼향더라
 다시라귀에올나수리를행홀시골골이흐르는물소리는옥을바아는듯귀에정정향고
 곳곳이괴괴하바회는억기를먹음어창연흔빛을써엿스니진짓선선동련이오인간경

呂洞賓

개아닐너라석각이준급고길이점점의험함에모다하마야물을싸라올나갈시흔
거름에도라보며두거름에집힘이를멈추어혹풍림을차자술을마시며혹류슈를림하
야거문고를두더니홀연물우에붉은남시덤덤이떠느려오거늘련숙인이랑귀비를보
며랑연이글흔귀를외어왈도화류슈묘연거하니별유던디비인간이라하니저덤덤흔
상풍홍염이엇지이월셋에양두하리오다형이산중에도화를그물치논재엽서우리로
도원길을찾게하도다괴귀비왈련랑은다시보라그남시심상흔락염이아니라하니털
귀비왈뉘글시를써보렸도다하고의동을명하야일일이건져오라하야암상에버려놋
코의론이분분하야혹왈도격이청고하야범인의홀배아니라하거늘진왕이니르러보
고쇼왈랑등이무엇을다도는쇼괴귀비에그남시를손에들어진왕씩드려왈상공은
보쇼서이엇지속인의필적이라잇가하거늘진왕이차례로합하야놋코즈세보니분명
흔일슈절귀라기시에왈

水流何太急 물흐름이엇지너모급흔고

底般忙 더곳치센르도다

笑指彩雲裏 웃고치석구름을그르치고

並騎白鳳凰 아올나흰봉황을두도다

진왕이웃고연왕을보며왈이글이과연슈상하니제랑의의심흔이괴이치아니하나다
만첫귀박씩의두글저업스니마쳐차자보리라제랑이물가를림하야차탄알조물이션

옹의팔적을앗겨묘연흔남시임의무정흔류슈를싸라멀니곳도다련숙인이또링쇼왈
넛적에러동빈은인간에는려석류썩질로글시를써지금지류전하거니와엇더흔실
업스선관이씩은남시를주어필묵을희롱하얏스리오이논초동목슈의작란흔인가하
느이다진왕이쇼왈선션을말흔은비록허황하나그글을보니속인의작란흔배아니라
다만물의놈흔사람이명산에오유하야츠평목엽의쇼슬흔홍금으로류슈광음을탁
의흔인가하노라털귀비왈이글쓴재만일인간사람일진대이산중에잇슬지니우리가
물을싸라올나가봄이묘홀가하노라랑왕이웃고다시수십보를헿하니일기폭피층암
절벽에떠러져빅설을썩느듯그아래일좌반석이잇고석상에차다린흔적과괴이흔향
내완연이며므려유산기의놀고잔자최러라괴귀비련숙인을보며왈이도초동의작란
흔거시나이상하다차다리든자리오허려석지아니하고안젖든좌석에이향이축비하
니이엇지삼산십주의도라가는자최학을멍에하고스슴을채질하야즈개봉경개를차
자놀다감이아니리오련숙인이바야흐로미쇼하며털귀비를보아왈대괴이흔일이
로다옥류동글귀와물우의쓰남시죽히허황흔자의의심을도올지라허물며슈상흔자
최섭분아혹하야아모리궁구하나허득기어려오니진기인간에도선선이잇단말가언
미필에일기가동이글시쓴남시들을주어오거늘보니사람인즈와일스즈두글저라모
다괴이허녀이다라홀연동편연덕에은은흔노래소리나거늘모다귀를기우려즈세드
르니

葉葉紫芝 엽엽홍죽은지초여
可以療飢 가히써료기하리로다
空山無人 빈산에사람이업스니
秋雲飛 가을구름이날도다

귀귀비늘나왈이무슴소리노하더니홀연일기도쇠도관도복으로빅우선들고약광쥬
리를메고쑥팀잔으로드러가니형석이표연하야말을못고져하나임의잔곳이업는지
라덜귀비대경하야량량을불너왈과량아더기를보느냐련량아그거시무엇이나광쥬
리는어이메며빅우선은무슴일고청산이덜덜흔디다른길이업거늘오는곳을못불너
나가는곳도모연하다련량아우리쓰라가봄이엇더하냐서로손을잇살고언덕에올나
스며을도라보니쑥풍은쇼슬하고빅운은용용흔디창등고목이지척에욱어져차즐곳
이업더라량왕이미쇼왕제량은엇지선선을조차잡고져하느냐우리의놈허을나왓
스니이향암이멀저아닐자라그곳에가다시적송안기의쇼석을람문하리라하고수보
를형하더니홀연상황소리반공에료량하야나는곳을알길이업거늘모다거름을멈추
고섯더니련숙인이니마에손을언고츠평과를홀너흔곳을바라보며급히소리하야왕량
귀비는더봉머리를우러러보라하거늘모다보니빠혀난피뿌리척양을써여푸른안키
들넋는더바희머리솔나무아래량기선관이성관홍포로혹미선을들고표연이섯스며
혹상황을불며초연이안졌스니비록용모를분간치못하나옥호흔얼골과선연흔디되

五仙巖 上仙菴

임의진세인물이아님을알너라진왕이망연즈실하야연왕을보며탄왈양형아이엇지
옥경요덕의적강흔무리아니리오내모음이표랑하진념이살아져부귀영욕이일편
부운호흡을세듯갯도다연왕이쇼왕선선이엇지별인이리오명리홍진에득실을근심
하고고히풍파에안위를무릅쓰스스로버서나지못하는재만일우리의금일형석을불
진대또흔선선호흔지니일로밀워불진대역역흔재범인이오고상흔재선선이며분주
흔재속인이오한가흔재선선이라내화형과벼슬을바리고산슈간에오유하니금일즈
개봉선선이아니리오량왕이서로대쇼하고다시봉두를바라보니량기선관이잔디업
더라량왕이제량과이향암을차자니르니적은암저척벽을의지하야극히정쇄하더라
암중에일기사미엇서황망이마저좌를덩흔후차들드르니연왕이문왈여괴서상봉이
얼마나되는노사미왕불과륙칠리오중간에큰바희잇서일흔이오선암이라넛적에다
섯선관이바희우에는려지금저지늘는자최완연하오선암아래일기암저잇스니소
위상선암이라전설이런상상선이련단하든곳이라하느냐다연왕이미쇼왕이산중에
엇지선선이그리만호하더라야이오져녀저를과흔후일룬홍일이셔산에셔려지고
황흔명월이동령에두렷흔중퇴락흔성광은정체를드리워가히문질듯하오쇄연흔송
풍은탑상에너러나졌신이청량흔지라량왕이제량을다리고암전에비회흔시렬귀비
련숙인을보며탄왈산중월석이이호치쾌활하냐홍란성선숙인반귀비와호치못봄을
흔하노라언미필에량기사미고왕제위상공은더소리를드르시느냐잇가모다귀를기

우리고즈세드르매공중의성황소리풍편에단속하야료량청아하거늘떨귀비경왈이
 엇지아싸듯던소리아니리오련속인이거죽듯는데하야왈이는봉두의속풍소리로
 다적막공산에인적이업스니누성황을불니요진왕이쇼왈송성은쇼슬하고성황은료
 료하니엇지분간치못하리오이는반드시왕즈진의네곡되라사미는소리나는곳을알
 아오라량기사미암즈뒤셔디에올나이옥히듯고도와고왈소리오선암에서나는듯
 하오나추풍이높하십분명치못하디이다연왕이진왕의손을잇그러왈엇더훈풍류
 선동이우리를이웃치회롱하느뇨그소리를차자놈히올나훈번몸이도도다하고량기
 사미로길을인도하하라고모다산문에서매일진청풍이산상으로느려오며풍편의
 성황소리지척웃치들니거늘진왕이량귀비를보며왈이상하다이소리여사람을고동
 하야표연이우화홀뜻이잇게하니엇지심상훈유산곡의불배리오귀비단왈우리는
 음물에총명업는재라만일홍란성선속인으로듯던들엇지곡도를듯고부는자를짐자
 지못하리오하고소리를싸라량기사미를압세우고중봉에오름에홀연사미손을들어
 ㄹ르치며ㄹ만히고왈더건너죽림잔에은이되논바회소위오선암이라암상을즈세
 보쇼서하거늘바라보니월하에무수한사람이흑좌흑립하야의뢰불속하거지표연
 하더라데일위에안진자는머리에성관을쓰고몸에하의를납고슈중에파리채를들엇
 스니비록미목을분별치못하나봉용훈안석과선연흔티되진짓선풍도골이오인간인
 물아아니러라데이위데삼위에안진자는성관쓰고도복을납고허리에적은호로를찾

스니또훈옥모풍치십분비범하고데스위에안진자는도관도복으로빅우선을들엇스
 니괴괴형용과고박훈모양이또훈속인이아닌지라바회머리에약로를노코차를다
 려점점훈향내산하에들니바라보는자로의식황홀하야의연이영유봉리의선선을
 디흔듯결단코등한훈속곡의좌석이아니라진왕이심중에십분경의하야써하되이는
 진기선선이라훈죽허황흔티갓갑고또훈아니라훈죽진세인물이엇지이웃흔재잇스
 리오하야다만망연이바라보며섯더니훈연데일위에안진재소매속으로쌍옥
 덕을내야들을향하야훈곡도를부니진왕이듯고당황하야떨귀비를보아왈량이이곡
 도를알쇼나엇지그리श्यक일상림월하에듯든바와방불하노재량이모다함쇼부담훈대
 진왕이더욱의심하더라츠시연왕이사미를본져보내여탐지훈후량왕이가보라하고
 사미하나를보내엿더니량구에서미던도하도라와고왈이산중에잇는지오래나진기
 선선을구경치못하엿더니금일구경하도소이다연왕이밋쳐못지못하야련량이마조
 나와문왈그무엇이런고사미왈빈되상봉길로올나산문을드러바라본죽언덕이높고
 월석이허여저십분명치아나나봉두절당에스위선선이암상에안졌스니데일위에
 이위에안진선관은얼골이빅옥웃고록포성관으로하나훈손에파리채를들고하나
 훈성황을불며데삼위에안즌이는갈건포의로슈미호빅하고데스위에안즌이는도관
 도복으로얼골이괴이흔티좌우에량기선동이쌍상도에청의를입고슈중에빅옥병과
 청옥반을들고피섯스니안석이또훈눈빛웃호여세간에구경못하든인물이라암상에

차를다려이상향내봉두에전동하고성황을조약히불거늘빈되압혀나아가합장하
 니대일위선관이성황을굿치고문왈너는엇더흔사람이노릇기빈되왈이향압에잇는
 가저다가문창을주라하고적은빅옥병을주기로가져오니이다련량이황망이빛아왈
 사미의소전이허황하나상공은이술을맛보쇼셔연왕이숙취미성이라일비를마시고
 왈천일주를특별미로아랏더니엇지홍란성의강남춘과방불하노련량이또일비를마
 셔왈상공이진짓취하시도다이술이청렬혼중이향이잇서인잔술과다른가하느이다
 연왕이웃고련량의손을잇그러왈선선유무는고사하고월식이쾌활하니흔번상봉에
 을나봄이엇더하노련량이쇼왈첩은범골이라가다가요디선즈에비식의흠을엇을가
 저허하느이다연왕이대쇼하고다시량기사미를다리고상봉을향하야수보를히하더
 니흔연량기쇼년이독포성관으로옥덕을들고암상에느려량연이웃고왈문창성은별
 티무양하시니잇가첩등이옥데의명을밧조와조개봉노름을돕고져왔느이다진왕이
 디쇼왈화진은범골이라다만벗을조차산천경개를스랑하야이곳에왔더니방탕흔중
 적이거연히십쥬삼산에니를줄기약하야스리오란성이인하야웃고샤래왈첩등이불
 민하오나엇지샤쇼흔병으로량위상공의금일노름을조치지아니리잇고마는무미히
 쓰라와쇼흔을돕스를방락이업는고로짐짓락후하야제량과약속함이잇스오나평일
 사랑하심을밧습고잠잔존위를롱락흔디갓갑스오니당돌흔죄를도망치못할가하느

이다진왕이쇼왈내오허려란성의종적의심하느니만일비경의란도와쌍성의봉황을
 명에흠이아닌즉엇지우리를압서리오란성왕선선의형적이센변악양루에오르되아
 는재업스니엇지조개봉첩경을모르리잇고연왕이미쇼왈선선의도술이비록선동하
 나옥류동석벽의쓰글시와홍엽의필적이니모본식이탄로하엇거늘화형이인간취몽
 을쳐지못하야지금롱락중에버셔나지못하엿도다진왕이쇼왈바야흐로봉두성황과
 도스의지지가를드를제양형이또흔경동하느빗을금초지못하더니이제홀로날만쥬
 룡하느나하고량왕이서로대쇼하더라덜귀비에손야차를붓들고쇼왈이도스느이
 에송림중에노래하든도석로도호는무엇이며약광주리논어디두노일채대쇼하고
 인하야암상에다시딩좌하고우러러월석을스랑하며구버산천경개를브라보와미미
 혼담쇼슈작이낀치치아니하더니흔연난디업는홍쇼리중던에료량하야유학검교
 를춤취이니모다놀나고신기하야이도또흔란성의지휘흔인가의심하더니란성이던
 연쇼왈이상하다이소리여심상흔초부어응의불배아니로다오날밤이산중에홍량이
 들되지아닐지니늑능히룡옥의넝곡도를롱락고져하느노맛당히제량과차자가보리
 라하고사미로길을인도하야소리나는곳을향하야수십보를히하더니흔곳을봄애송
 림간에인영이잇고놀는산금이편편이느라느거늘조세보니월하에량인이머리에성
 관을쓰고몸에홍포를넙고손에룩미션을들고푸른눈섭과눈웃흔얼굴에웃는빛을써
 여량기도동을다리고쇼연이지나가거늘란성이소리하야왈더과가는더선관은잠잔

雲孫 牽牛

말을드르라우리는진세속인이라니산중에드러와풍경을싸라길이희미하야갈바를
 아지못하니지도움을바라노라량인이거름을멈추고읍하거늘모다압출당하야보나
 언지알니노원릭압선량인은이에량기궁인이오뒤에싸르른자는청옥량량이라량왕
 과제량이그음을보지못하고로의희흔월하에변복흔모양을창졸에디하야엇지의외
 안면을괴억하리오서로당황하야그신선이며속인임을세듯지못하더니란성이량량
 이웃고진왕씨고왕더량기선관은옥데궁중에복시하야잇는옥네라엇지모르시니
 잇가금야운손량량의명을밧아견우성군의쇼흥을돕고저하야진세에하강하니이다
 량과량귀비바야흐로써듯고량궁인의손을잡고반기며곡절을문왕량이엇지이곳에
 왔노노궁인이쇼왕태후와공귀귀비를보내신후신식을알고저하실뿐아니라첩등이
 평성에금릉의갓천임모호하야종적이성외에나지못함애승디강산을흔번구경할기
 회업더니귀비를조차쇼창코저함이로소이다인하야량왕씨문후하니진왕이궁인을
 무르쳐연왕을향하야왕더량량은태후궁근시하느네라우리향일연출면노름에도
 흥형과안면이친숙할지라형이혹괴억할지니알아보겠느냐연왕이흥선답례하더라
 진왕이다시웃고량기선등을명하야왕묘지라초동이여진짓쌍성소옥의일뤼로다하
 더라아시오산상의찬괴운이사름을엄습하고공중의흰이슬이웃깃에무드하니량왕
 이제량을다리고다시이향암으로올시량궁인은옥쇼와성황을불며홍란성선속이은
 쌍떡을알외고삼귀비와련량은산가를화답하니경경흔흔하느머리우에밧겨잇고푸

齊景公 牛山

南岳荆山 懷夫人 邯鄲

른안키와몹은바람이발똥히나러나거늘량왕이서로보고쇼왕아싸홍란성은거죽선
 선이오지금우리는진키우해로다 이날밤안중에셔쉬고익일미명에다시상봉에올나
 일출을볼시세계홍몽하고던디흔흔하야지척을불변일너라일류홍광이희상에소스
 며만리금패반공에뛰놀거늘진왕이손을들어치운을무르쳐며왕더등근박취아싸는
 희상에잇더니지금은운잔에두렸하니부성빅년에광음이홀홀하야홍안빅발이불과
 순식이라천추만고에제경공의눈물이엇지흔것우산락일을슬허하느름이리오연왕
 이쇼왕더일류홍광이삼빅륙십도를도라삼천대세계를비최이나슈고롭지아남은순
 리하야형흠이오흔구암실에아니빅최일곳이업고리미망량이그형용을도망치못함
 은스시업습이라다만흔하느바는일편부운이자로광체를무리와던디만물의성성지
 락을밧내지못하게하니내엇지면만리장풍을엇어구던운무들기리소제하고일류홍
 광을완전케하리오모다탄식하더니아시오추련이막막하고아출안키거두매세계청
 량하야빅리의호말을려려히헬지라비슈를가져서로마시며원근산천과중원일국을
 안하에굽어볼시련속인이초연하야멀니남편산을무리쳐왕이느남악형산이라안력
 이유한하야부모지방을바라보지못하니추풍의도라가는기력이못됨을흔하노라잇
 을니어삼귀비제량이차례로고향산식을무리쳐아득흔근심과묘연흔성각이선부인
 의가야금을의지하야한단길을바라보느단식을금치못하느니라란성이웃고대빅을
 들어제량을위로왕첩은드름애넷성인이등대산쇼련하하시니달관흔안목으로말할

진대스히지척이오륙합이안전이라남지공명을담호즉만리에봉후호느리별이있고
 녀지가실을뜻둔즉천괴슈의호이있는니첩이또호간남사름으로만리남련에표박종
 적이되고북방절역에풍진을무름써고초를비상호고상위를열력호후이제이되에을
 나경력호자최를굽어보니초명이와각에깃드리고척알이봉고에놈과호가지라제랑
 은더중원일국을보라불과호손바닥긋거늘조고로영웅호호결과저조가인이이가온디
 성장호야이가온디민멸호니그깃부고슬허함을엇지족히말호리오랑등은은녀조의
 영영호눈물과쇄호말슴으로강산풍월을쇼슬게말지어다호고랑랑이우으며육덕
 을들어일곡을부니만리장풍에료호호소리추풍을조차아래로삼천세계에호호지고
 우호로십이중련을스모칠듯호거늘진왕이탄왈란성의말양호호괴운과락호호흥금은
 우리호호장부로당치못호리니조개봉괴세를족히항호호리로다호다라슈유에비반
 을거두어이향암에도라와아춤과호호쇼사미를불너왈내임의상봉을보앗스나
 다론경개어디호호노네길을인도호라호고랑왕과일히이호호도관도찰과슈석을초
 레로구경호호사미고왈이산중고찰로말호호진대대찰이대승석웃듬이오슈석으로말
 호호진대가섭암이데일이니이다연왕이사미를싸라몬져가섭암에니르니과연호호모동
 이슈석이동중에알리며충충호호석벽은벽옥병풍을늘너잇고류슈는슈정럼을드리워
 괴이호호돌과아름다운남기진짓요디선경이오진제아닐너라반석우에덩좌호고차를
 다리며밤을지을시란성이쇼왈암상의데명호호를봄애이곳이반드시초산중데일경개

大乘寺 迦葉庵

岐陽石鼓 峴山片石

라우리도왔든자최를머물고감이도홀가호는이다연왕을내평성고찰에데명
 호호를위호호는니엇지써자최를머물니오란성왕각각일슈시를지어암상에삭인즉비
 록기양석고를당치못호나또호호현산편석에지리아닐가호는이다진왕이도호호를칭찬
 호고즉시필연을가져오라호호야각각일슈시를지으니연왕의시에왈

紫蓋峯頭曉降仙 조개봉머리에새벽에신선이느리니

東望海日扶桑邊 동으로바다날을부상가에보라보도다

沙彌更指靑山路 사미다시푸른산길을가르치되

迦葉庵前有洞天 가섭암앞히동련이있다호더라

란성시에왈

瓊海茫茫月露團 구슬바다히망호호들이슬이둥그릇스니

芙蓉劍插駕靑鸞 부용검을뺏고푸른란새를명에호도다

平明去赴三山約 평명에가삼산언약다다르니

一曲笙歌碧落寒 호곡도성황과노래에푸른하늘이차도다

선속인시에왈

泠泠環珮御風來 령령호호환패바람을어거호야오니

終日水聲轉石臺 날이뭇도록물소리돌이에구을도다

水石相喧人尙樂 물과돌이서로짚거리되사름은오허려즐기니

霏霏談屑萬年盃 비비흔말슴과만년술잔이로다
련속인시에왈

一水中分萬瀑流 흐물이가온디난호여일만폭뢰흐르니
雪噴雷吼勢難休 눈곳차썰고우뢰곳치부르지는형세쉬기어렵도다
畢竟同歸瑤海去 필경은흔가지구슬바다로도라가니
海中何處五雲樓 바다가온디어는곳이다곳구름다락인고

진왕과삼귀비또흔각각일슈시를지어셔벽에쓰고암승에게분부하야샤이라하니라
연왕이진왕을향하야쇼왈우리산중에드러와다만산형에로록하고실로중용비주로
물의홍금을도론치못하더니이제슈석이장아름다오니맛당히주효를열어강산풍
광을저브리지말니라하고단풍가지를씩거굉주를늦코서로마실시연왕이미취함에
추슈창안의괴상이호탕하야푸른색리와물은물을마르치며진왕을보아왈화형아인
성벽년의헝락이무엇이노부귀는부운이오공명이흔때라일신이무병하야근심이업
고신제한가하야강상청풍과산상명월로벽년을보낸이이날은디상신선이라창곡이
련은을넘어외람흔공명이왕후장상에미쳤스나그평안하고즐거움을말할진대화형
과일비주를잇그러금일슈석을디흔만곳지못하니이엇지득실을근심하야평심을열
력흔자와말할배리오취면에호풍이셀치고물은슈성이진금을세척하니머리를도로
혀왕스를추상흔즉무비위경이오금업흔쳐디라성주를맛나명철보신을끓을뜻이잇

스나성상이다만수년말미를허하시고제위더곳치름송하시니산슈청복을누릴날이
불구할가하노니화형은장춧엇지써지도코저하노진왕이단왈형은더물을보라언
덕을당흔즉흐름이급하고평디를맞는즉완완이헝하야못칠리넘침이업스니형세를
스라순리하야헝흐이라형은다만헝장을물곳치하야련명을순슈하고안위와화복을
역도치말라연왕이샤왈형의말이유리하나형은또흔더곳개봉을우러보라단애취
벽이천만장이놓았스나사를마다그상봉에오름을곳고하니만일협준함을료량치아
니하고흔거름에뛰여오르고저흔즉반드시연도랑패하는환이싱길지라지혜잇는자
는반드시각력을저량하고길을차자협함을당흔즉거름을머추고위티흔곳에헝보를
조심하야초초전진하노고로곤함이업고련패함이적으니이산헝하는법이라이제
환로의위험함이곳개봉에비할배아니여늘창곡의년쇼덕박함으로급흔거름이입의
극진지두에을낮거늘오허려쉬지아니흔즉비록요형으로업더짐을면하나엇지유식
자의우음을스양하리오이듯듯싱각건대곳개봉두의시비업는더구름과가섭암전의
형정흔물소리심상이들니지아니하니초로인성이엇지가련치아나리오랑왕이서로
단식하고각각대취함에제랑이또흔월석을씩여쳐창할루하더니선랑이거문고를다
리여일곡을두니그노래에왈

白日西馳兮 흰날이서으로달녀감이여
水東流 물이동으로흐르느도다

人生歡樂兮 인성이즐김이여
對酒長歌 술을더하야길게노래하도다

양왕이노래을듯고적절추연하더라이오월석이만공하고산풍이쇼슬흔디죽죽흔
풀버러지논이슬을원망하고연연산재는월석을놀내니심신이비나청량흔지라연
왕이창두등을암중에보내고다만량왕과삼랑삼귀비련옥쇼청을머드러희쇼롱월하
다가란성의손을잡고개연장탄왈내포의한스로삼십이못되야공명이극하고랑등이
청춘지년이라물외쇼요하야청한흔복으로빅년을괴약하얏더니만일쇼덩에일이잇
서다사브르진즉스양치못홀지라종초이후로금일지위쉽지못홀가하노라란성이쇼
이디왈상공이더슈월을알으시느니잇가흐름이준급하나분슈에넘침이업고영결이
유시하나광체를곳치지아니하노고로천추만세에변혁하지아니하니브라건대상공
은홍금을명월곳치가저시고성품을물결곳치형하샤련명을순슈하고심려를넌니쇼
서연왕이키용칭션하더니야심함애량왕과삼랑삼귀비소매를련하야암중에도라을
시홍련량랑이오허려숙취미성하야정보를일우지못하거늘션랑이표연이압서도라
보며쇼왕량랑이척하용저러니금하취야오홍랑이웃고왈나는일즉힘로에신코하나
랑은엇지평디던도하야천리만교로서시의웃고쌍김을본맛는노삼인이대쇼하며십
여보를형하더니련랑이비록과인흔쥬량이잇스나종시나허어리고괴질이약흔고로
정신이흔미하야연왕의소매를벗들고미첩에조름이그득하거늘연왕이청옥량랑으

로벗들녀암중으로오니라연왕이익일사미드려문왈이산중에도관도찰이만타하니
어는곳이그중데일이노사미왈여괴셔이심리를더간즉대승셔라하노절이잇스니이
절이데일대찰이오스중에일기대서잇서법호는보조국셔니다법계를이탁월하야이
다연왕이대회하야구경코져하니엇지흔고하회를보라

대오십칠회

迦葉庵秦王別友
大乘寺仙娘訪親

가섭암에진왕이벗을리별하고
대승스에션랑이어버이를맛나다

각설던지진왕을보내신지장근반년이라래취스렴하샤쥬야념려하시는지라던지민
망하샤진왕을급히명쇼하시니라차설진왕이명산에오유하야도라갈뜻이업스나래
후의스려하심을죄송하더니일일은던셔느니라명쇼하시는황명을전하니진왕이부
향스빅하고황망이떠날시관운위쉬별리하노정을먹음고창가빅되거류지창을금치
못하노중연홍의탄식과리구의노래양관곡을디신하니일좌초창함을세듯지못하노
지라진왕이연왕을디하야왈화진이양형을환히에상봉하야령서일덤이옥호편빙에
빗최여모음으로금란계를허하고몸으로보인함을조괴하야명구에심방셔지느니라
별원지유와조개지형에진루를거의니저귀심이돈연이업더니이제분슈성우에엇지
창연치아니리오마는형도불구에입쇼하리니기시에금일의미진흔정회를다할가하

노라연왕이 창연왕봉우논오륜의 하나 허라정의로 말한면형데와 다르리오 창곡이 불
 민하나 판포지의와 원벽지교를 엮지 모르리오 평슈의 봉별이 무덤하나 벽아의 거문과
 쥘조그를 리별하야 고산류취현상에 적막하니 심상헌봉위라도 이 리별을 견디지 못
 하려든하를며우라리오인하야 비쥬를나와서 출양관무고인을 말하니 리덩의는 님
 사귀와별로의도라가는 구름이 리별을 앗기 더라 처시삼귀비삼랑의 손을 잡고 할루자
 별하니 라차설연왕이 진왕을 보낸후삼랑을 거느려 각각 일필청려를 두고 대승스로 향
 할시랑기사미인도하니 봉회로 전하고 슈목이 참련하야 잔원헌슈성은 육공에 셋겨졌
 고되락헌석고는 안기에 저졌스니 진짓등던별게오 별구승디라 룽철리를 행하니 사미
 고왕여기서 동으로 수십보를 행헌즉적은 경치잇스니 구경하실가 하나 다 연왕이 혼
 연하야 삼랑과사미를 조차섭여 보를 행함애 길이 힘하야 창두와라 귀를 동구에 머므르
 고삼랑과마회를 안고 등라를 붙들어 동중에 니르니 스면석벽이 팔렴육병을 들넋는듯
 일도청천은수척필연을 걸었는듯 벽상에 글자로 육병동이라 샅엿고 수플에 세줄기 돌
 이 정정이잇스니 희기옥고고 높기오 룽장이라 그우에 세설가척축화넋거늘사미마르
 쳐왕이논옥련봉이오마준편의바회는 망선되니 전설이세간에 국석이난즉옥련봉머
 리에척축화핀다하더니 십여년전분북봉두의 뜻이 뛰여삼스월이면북은그림지물가
 온디조요하야 괴이하니이다 연왕이삼랑을 보며미쇼하더니 물가온디수층석각을무
 엇거늘란성왕이논무엇하논곳이노사미왕보조국식년년이 이곳에와괴도하논이다

玉屏洞

玉蓮峰 望仙臺

란성이 쇼왕국시속연이업슬지니 무슴소원이잇서괴도발원하논노하더라 연왕이셔
 상에안져차를마시며왕작일가섭암슈석은장녀하야 영웅남자의괴상이잇고금일옥
 병동슈석은연미하야 규종가인의티되잇도다 비회랑구에다시대승스를향할시동구
 를보라보니리인거괴이락역부절하고승니도식분분던도하거늘사미드러분왕더것
 이무엇이노사미왕금일보조국식대중을모하설법하논이다란성왕우리비록승디를
 구경하나잡념을과탈치못하엿더니금일국스의설법을드러 룽근을청정하게하리라
 라귀를박비모라산문에니르니량기쇼사미나와져왕금일은석가세존이대열반에
 드르신날이라 빈도등이절에서십방대중을모화송경설법하논고로령경하논다월이
 만코대석년로하야이로영접지못하오니그거만함을용셔하쇼셔연왕이물을느려왕
 우리는유산괴이라곳하야령경하려온사람이아니니네절경개나마르치라사미웃고
 인도하야문루에오르니이층문루에금조로데일동던대승스라 샅엿고금벽단청이쥬
 요하야북은란잔이반공에소사대천제계를굽어보고푸른기왜의기를먹음어무궁일
 월을열력하얏더라쇼사미루에느려손을들어마르쳐왕등으로릭련봉과남으로십왕
 봉은아침안기를씩여저세치아니하고셔으로슈미봉과북으로저개봉은대승스쥬산
 이오저개상봉은벽운이마리여청명헌날이아니면퇴이지아니하논이다 연왕이유연
 이브라다가루에느려절을구경할시장랑을지나선방이잇고정당을련하야헝각이들
 넋는디기동마다법서를붓치고첩아마다풍경을걸고방방이송경하논소리귀를흔들

檀越

白蓮峰 十王峰 須彌峰

地藏菩薩

더니연왕일행이음을보고몬져화상이다도와금가를납고분분이하방비례하니로승
은청정하야물욕이취고소승은공경하야게를이엄속함을불문가지위명산대찰이오
공문도중이라흔던을지나칠보탑을구경하고석디에올나보니즈명중이노였는디삼
층법당의단청이공교하고천문만호의제되옹장하야노목금강은좌우에시립하고즈
비보살은탑상에단좌하니보개운번과련화선향이서괴어렸고유취령동흔지라쇼사
미일일이그르쳐왈데일위에안즈신분처는석가제존이오좌편에관음보살이오우편
에디장보살이며동벽의그림은염라디옥이니츠성의적악자는디옥으로가고셔벽의
그림은극락세계니츠성의적덕자는극락으로가니이다연왕이쇼왈나는평성에악업
도업고공덕도업스니후성의갈곳이업도다선량이쇼왈적악이업슨즉이거시공덕이
라연왕은극락으로가실거시니부디날과곳치가게쇼셔연왕이웃고란성드려왈홍
성은엇지말이업는노란성이미쇼왈나는한가하야산슈간에쇼요하니이거시극락이
라다른발원할배업는이다제인이대쇼하더라사미다시인도하야법당뒤에적은암지
잇스니명왕상승암이라일기대서석장을집고빅팔보주를들고하당하야합장비례하
니희눈섭은니마를덜헛스며푸른얼굴은고괴흔빛을띄엿스니그존양함을알지라연
왕이승당좌등후문왕선사의년기멧치노대시왈철심구제로소이다우문왕법호는무
엇이라하는노왕변되무슴법회잇스리오닐건는재보조대스라하는이다연왕왈이절
지는지멧히이노왕당나라신무황데창건하시코우리래조황데중슈하시니건조흔지

上乘菴

일천일백년이오중슈흔지빅여년이니이다연왕왈우리는유산하는사람이라우연이
지나더니금일대중을모하설법함을듯고구경코져왔노라국시쇼왈불가의설법은유
가의강석이라스되업슨지오래오니곡삭존양의붓그러움이잇는이다츠시대승스의
보조국시십방대중을모화설법함을듯고구경하노는재구름곳호여산문이메엿는
대모든화상이가사를납고도장을비설하야법당을흥기하고향화를버리니분분흔던
화는탑전에흐쳐졌고은은흔호광은도장에비최이니당중하야련화를무어칠보탑상
에비단자리를피고보조국시다란잔운립을쓰며마가금루가를납고파리채를쥐어련
화뒤에오를시연왕이삼랑과구경하노자외섯기여혹좌혹립하엿더니보조국시묘법
련화경을강론함에불음이호당하야십방을올니고선종이등달하야미진을보제하니
모든화상과여러데지합장계상하야향화를올니며대중을세우쳐왈석상이구공하니
구공즉무물이라광대흠이어디잇는노대중이적연무답하더니홀연모든중일기쇼년
이미쇼왈광대무량하니무량흔즉무형이라석상을어는곳에차즈리오국시대경하야
황망이련화뒤에노려합장비왕선지라원음이여활불이출제하시니빈되묘법을듯고
저하는이다모다그쇼년을보니봉용흔얼굴은일지명해이슬을띄엿고혜철흔눈은삼
오명성이재벽에돛앗는듯그상이영발하고성음이아릿다와일채경동하니이노별인
이아니라이에홍란성이라츠시란성이랑연쇼왈지나가는사람의솔이흔희언을허물
치말라국시합장고왕상공의일언에스심팔만대장경이그가온디잇스오니밭비련화

디에 이르샤대중의 흠앙하는 뜻을 조비하쇼셔란성이곳이소양훈대국시사미를명하
 야련화디압히별설일랍하고란성의오름을근청하니란성이침음양구에성관록포로
 양언이랍상에올나가부단좌하거늘국시혜안을홀녀자로테시하며다시련화디에올
 나대중을디하야왈이자리에아룩다라삼막삼보리를세드른선남선녀는가가이안져
 령참하라고파리체를두루며문왈유식무공이본비묘법이오유공무식이원무련회
 라엇지일은묘법련화이노란성왈공변시식이오씩변시공이니원무련회라하유묘법
 이리오국시우문왈과무묘법이면법하이되며과무련회면화하이련고란성왈묘고무
 법이오련연무해라어시에국시파리체를누이고합장샤왈지의진의라셔의문슈보살
 말씀이이러하니그도통을니를재업더니이제상공은문슈전신이아니신즉보살의데
 즈신가능이다하고과품과다당을친히밭들어드리며도장을과호후연왕과삼랑을
 암중으로청하야등잔을도도고불법을강론할시란성이담회성풍하고스리후철하니
 국시망연조실하더라원리란성이빅운도스를조차스도로섬기나도스는문슈보살이
 라조연불법에정통함이잇스나평성발설치아니러니이날국스의설법함이비법함을
 보고수천어를디답하니국시대경하야합장문왈빈디불감하오나상공이어디게시며
 칭호는뉘라하시니잇가란성왈나는강남항주에잇는홍성이로다연왕이문왈내설
 법을듯고법안을디흠애대스의총명괴상이비법함을알지라엇지더又흔던지로공문
 에일흠을도망하야평성을적막히보내는노국시무언량구에홀연참담왈영육궁달은

文殊菩薩

杜秋娘
五娘

文殊庵

季師曠
季札

막비련당이오위속위승은또흔인연이라이제상공이총곡으로무르시니빈되엇지심
 스를괴망하리잇고빈도는본디락양인이라가산이풍족하고성석을도화하야두츄랑
 의후손오랑은락양명이라천금으로미득하야일기녀스를나음개안식이극가하고총
 명이절인하야심히스랑하더니산동에도적이대기하야락양군스를도발할시빈되중
 군하야수월후도적을평당하고고향에노라오니출락이리산하고가권을무를곳이업
 서전설이혹도적에게죽었다하고혹잡혀갔다하노라제치못흔지라일중정근이오랑
 모녀를닛지못하야세럼이업서산중에락척하야둔이다가려산문슈암에락발하니본
 의논불법을닥가공덕을싸아오랑모녀를후성에나맛날가힘이러니우연이경설에세
 침이잇서지금은거의진념이청정하고속례살아지나중시련분이중하고정연이미단
 하야화조월석에서시로초장함을금치못하니공문에도망함이엇지즐거울배리오츠
 시선랑이초연을듯고무단이루슈를제어치못하거늘대석자로혜안을홀녀니이보며
 문왈더상공은어디게서노선랑왈나는본디락양사람이라이제대석또흔동향지인인
 고로조연심스의감동함이잇는니대스의속성이무엇이노국시왈빈도의성은가씨니
 이다선랑이우문왈대석녀스를더리싱각하니지금비록맛나나무엇으로중험하리오
 국시왈난지불과삼세라던형이오랑과흡스함을싱각하고던성이총해하야삼세에임
 의음을늘써다라오랑의거문고를듣고문무현을분잔하니만일지금성존흔죽반드시
 스광계찰의총명이잇슬가하니이다선랑이청과에더욱어식하거늘국시슈상이보아

왕상공의 춘취몇치시노선랑왕십팔세로라국시척연왕세간에얼골웃흔재만흐나이
 제상공의옥모를뵈음애두오랑과흠스고년과또흔녀의와동감이시라빈되즈연정
 세출동음이잇느이다연왕왕오랑의얼골이더쇼년과어대가방불흐노국시머리를슈
 이고난안흔과식이잇다가다시고왕출가지인의말할배아니로되평상에적중흔십회
 라상공을과망치아니리니빈되중군할제오랑을춤아리별치못흐야화상을그려품고
 갖더니지금까지일치아니흐얏스니상공은보쇼서고귀속으로적은죽즈를내여벽
 상에걸거늘연왕과제랑이즈제보니이에일폭미인되라년과비록만흐나모말과미목
 이선랑과호리불차흐니츠시선랑이죽즈를붓들고방성대곡왕그년과와성향이들니
 지아니흐고그얼골과스적이다름이업스니다시무엇을의심흐리오이는분명히첩의
 즈모로소이다연왕이선랑을위로흐고대스드러왕련들은경이히말하지못할지라무
 슴다른신적이잇느노대석왕빈되랑익하에두낫스마귀잇셔늬은보지못흐나오랑이
 알고미양말흐녀의의익하에도또흔이웃흔혹지잇다흐나빈되밋쳐비교흐야보지
 못흐니이다연왕이선랑의익하를종용이상고흐니과연혹져잇서즈과도모르든바라
 다시국스의랑익을봄애일호다름이업거늘연왕이과이히녀여선랑을명흐야국스씩
 지비호야련류를명흐게흐니선랑이나러나절호고올며고왕녀이획죄신명호와삼세
 에병화를맞나모친을일코유리표박흐야청루에팔니니다만본성이가씨오부피업는
 줄만알앗더니엇지금일이잇슬술알앗스리오설과에오열함을말지아니흐거늘국시

또흔할루왕내입의네얼골을보고자못심회경동흐나중시남조로알앗고너조로써듯
 지못흐엿더니이제이십여년손어젖든부네련류를다시니으니엇지과이치아니리오
 마는그때너의모친이엇지됨을괴억흐깃느나선랑왕비록의희흐나도적이모친을사
 로잡아가라흔죽모친이나를안고도망흐다가적한이씩라형제급함을당함애나를길
 가에늦코넬우물에써지든것만싱각흐느이다국시현연흔눈물이금가를져서왕내이
 제나히팔순에갓갑고몸이출가흐야엇지부부의고정을견련호리오마는너의모친은
 비록청루천인이나진귀의관음이라지죄놈흔것과즈식이출인함을이때것닛지못
 흐기이곳옥병동에히마다과도흐야너의모녀맛남을축원흐더니금일너를디함은이
 보살의지도흐심이로다연이나네엇지너조로변복유산흐느노선랑이이에강주셔연
 왕을맛는말부쳐전후곡절을일일이고흐니국시다시나러연왕을향흐야합장사왕빈
 되눈이잇스나상공이연왕면해심을몰낫스오니그레수의거만함을용셔호쇼셔연왕
 이쇼왕국사년로호고나의악용이라너모과공치말라국시흔연이연왕압히갓가이안
 저연왕의얼골을즈제이보며은근이공경호고스랑흐느과식이마득흐니연왕이또흔
 관디호더라국시다시랑에게시례호고더욱공경호더나란성이쇼왕데지인간지연
 을모고장촉선스를씩라서련으로가고저호노니스부느지도호쇼셔국시왕랑은귀
 인이라오복이무궁호리니엇지적멸흔법계를차즈시리오빈되면마지치조불려석이
 라평성흔호든녀의를맞나니여흔이업스나몸을임의공문에버렸고뜻이또흔불가애